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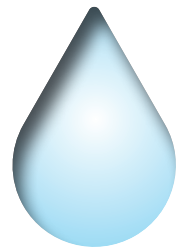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법원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Supreme Court of Korea

vol.387

2017. 07.

법원 사람들



VACATION

울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시나요?

산도 좋고 바다도 좋아요. 충만한 휴식과 재충전으로
삶의 에너지가 가득 채워지길 기대합니다.



대법원



Cover Story

이번 호 표지 주인공들은
아름다운 바다를 품에 안고
오늘도 힘차게 달리는
강릉지원 마라톤 동호회
'올마회' 회원들입니다.

Contents

2017 July vol. 387



발행일 2017년 7월 1일
통권 387호
발행인 법원행정처 차장 김창보
편집인 공보관 조병구
편집총괄 홍보심의관 이종표
편집기획팀 박가영, 우준서, 신영분
발행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화 02)3480-1456 팩스 02)533-5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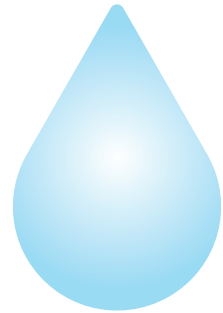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List.work?gubun=7>
이메일 법원사람들@scourt.go.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courtkorea>
트위터 <http://twitter.com/scourtkorea>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
유튜브 <http://www.youtube.com/scourtkorea>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sourthkorea/>
기획·디자인·인쇄 (주)성우에드컴 전화 02)890-0900

소통으로
With Local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04 **프롤로그**
 - 06 **법원 톡!톡!**
영동지역민이 믿고 찾는
가장 든든한 주춧돌
 - 10 **포토 카툰**
강릉지원 울곡 마라톤 동호회
 - 12 **Tour**
파도, 커피, 고택이 어우러지다



MARATHON



공감으로
With Court

- 16 **핫 이슈**
대법원 서소문 옛 청사 사진전 개최
- 18 **나의 일 나의 삶**
남원지원 서무계장 1년을 돌아보며
- 22 **테마가 있는 글 I**
환상적인 영상의 세계, 블루레이
- 26 **테마가 있는 글 II**
봉사활동? 어떻게? 뭐하지?
- 30 **우리말 달인**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 34 **생활법률**
재혼 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나요?
- 35 **법원으로의 초대**
천천고등학교 특수학급생의 대법원 견학

행복으로
With People

- 36 **어린이 소식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변호사 이태영 이야기 외
- 38 **현장 속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는 두 명의 윈더우먼이 있다
- 40 **스타일링 Q**
평일에는 스마트하게, 주말에는 편안하게
반전 스타일의 완성!
- 심하숨 수원지방법원 실무관
- 44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의리에 살고 정의에 산다!"
- 배우 김보성
- 48 **심리 상담소**
불안과 우울, 이렇게 대처하세요!
- 50 **트렌드 따라잡기**
방송으로 들어온 인문학 트렌드
- 52 **COURT NEWS**
- 54 **독자 마당**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글 · 사진_편집부



소나무 숲이 인상적인 경포대 해변

‘술향 강릉’
강릉시의 소나무 사랑은 유별납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숲은 물론 수목원도 있습니다.
관동팔경 제1경이자, 명승 제108호인
경포대에도 소나무 숲이 일품입니다.
이곳을 찾은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바다만큼 시원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120여 년 전통을 이어온
강릉지원도
푸른 소나무를 많이 닮아 있는 듯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도
소박함과 기품을 곳곳이 지키며
지역민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영동지역 최고의 사법서비스 기관으로 인정받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영동 지역민이 믿고 찾는 가장 든든한 주춧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가장 주목받는 도시를 꼽으라면 단연 강릉시다. 여름이면 수많은 피서객이 몰려드는 관광도시지만 개통이 예정된 고속전철과 새롭게 뚫린 고속도로가 서울과 영동지역의 거리를 한층 가깝게 만들면서 유구한 문화유적과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895년 강릉재판소로 출발, 12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강릉지원을 방문한 것은 이 시점에서 참으로 적절한 결정이었다.

글_이경희 · 사진_황원 · 영상_오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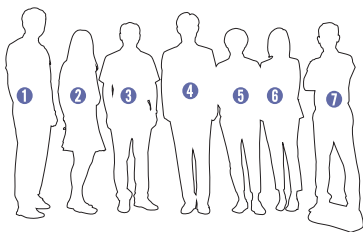


강릉시 난곡동에 위치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를 관할구역으로 삼고
있으며 15명의 법관과 90명의
직원이 일하는 곳이다.



- ❶ 강관호 실무관
- ❷ 박찬희 실무관
- ❸ 박창재 등기과장
- ❹ 이창열 지원장
- ❺ 이향숙 행정관
- ❻ 정지은 판사
- ❼ 윤정순 참여관



기품과 도리를 지키는 우아함이 깃든 지역

강원도라는 명칭은 ‘강’릉과 ‘원’주에서 유래한 것이다. 영동의 중심도시인 강릉이 강원도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강릉은 수많은 위인과 유적지, 직접 손으로 빚은 듯한 아름다운 산세와 바다를 함께 품고 있어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문화관광도시로 정평이 나 있다.

강릉시 난곡동에 위치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를 관할구역으로 삼고 있으며 15명의 법관과 90명의 직원이 일하는 곳이다. 지원으로서의 꽤나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국에서 지원 중 ‘유일’하게 항소사건, 행정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까지 관할한다는 점이다.

이창열 강릉지원장은 이를 두고 “명실상부한 영동지역의 중심법원으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며 그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흔히 영동지역을 두고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며 외지인들이 선뜻 입성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창열 지원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2016년 2월부터 강릉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17년 2월에 지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온몸으로 겪어온 ‘영동지역’과 ‘강릉지원’은 독특한 지역색 안에 소박함과 기품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병풍처럼 놓인 태백산맥 너머 이곳에 터를 잡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에 순응하는 소박함과 멋 부리지 않는 투박함이 있는 한편, 전통문화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예의를 중시하는 점잖은 기품이 있습니다. 강릉지원의 분위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출하고 화려한 사람은 없지만 누구 하나 모나지 않고 주변과 잘 어울리며 꾸미지 않아 무뚝뚝한 표정 속에는 도리를 지키고 사람 귀한 줄 아는 이의 선한 눈빛이 숨어 있지요.” 조용히 그리고 차분하게 이곳의 특징을 설명하는 이창열 지원장의 목소리에서 얼핏 선비의 난향이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듯했다.

영동지역 최고의 사법서비스 기관으로

강릉지원이 다른 지원에서는 보기 어려운 다양한 대민 프로그램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영동지역민을 향한 애민과 존중의 정신을 근간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먼저 바람직한 법정언행의 정착을 위해 법관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정언행심리방식개선 실무연구회를 구성하고 연 1회 법원을 직접 이용하는 소송 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 관계인, 증인, 방



오랜 역사, 넓고 쾌적한 청사,
그리고 안을 채우는 직원들의 활력과
따스한 정, 이 삼박자가 한데 어울려
오늘의 강릉지원을 만들었으니,
영동지역민들과 함께 꾸려나갈
강릉지원의 미래 역시 동해
앞바다의 일출만큼이나
찬란하게 빛나 보인다.



청객 등을 대상으로 법정 설문조사를 실시해 법정언행 등 재판절차 개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꿈꿀 수 있다. 또 작년에는 강릉지역에 있는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법무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강릉법률가 포럼'을 만들어 처음으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시민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공개강좌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밖에도 1년에 두 번, 관내 법조 유관단체(변호사회, 법무사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판업무나登記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만들고 있으니 지역민을 위한 사법기관으로서 '이론·실무·실천'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노력의 면면이 엿보인다.

이창열 지원장은 이 모든 제도를 앞장서서 시행하는 직원들의 행복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각자 맡은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스스로 만드는 이 분위기가 강릉지원을 영동지역 최고의 사법서비스 기관으로 만들어왔다는 의미다. 산나물을 갠다며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건네주고 획 돌아서는 직원들의 뒷모습에서 강릉지원의 진짜 '정'을 경험했다며 껄껄 웃는 이창열 지원장의 모습에선 강릉지원과 직원들에 대한 애정과 자랑스러움이 넘쳐났다. 민사단독의 정지는 판사 역시 '포장'보다 중요한 '진심' 덕분에 마음 넉넉하게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부부 판사로서 함께 강릉지원에서 근무하는 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직원들의 뛰어난 능력과 편안한 소통 덕분에 높은 만족도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가족 같은 강릉지원"이라고 말하는 정지은 판사의 미소가 한없이 녹진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



Mission Start

시원한 수박 먹고
얼굴에 복점 찍기!



Interview



이창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에서 취재
동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성의를 다하는, 모두가 행복한 강릉지원

저는 기회가 있을 때 판사님들이나 직원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일에 성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의라는 말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이 아닐까 합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사람이 성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상대방이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당사자들과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법관의 성의가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때 당사자들은 그러한 법원의 모습에 화답하여 참다운 신뢰를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의를 다하면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우리 강릉지원의 특색은 판사님들이든 직원들이든 누구 하나 모난 사람이 없고 순수하며 맡은 일에 책임감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책임감이 강한 나머지 밤늦게까지도 사무실 곳곳에 불이 켜진 모습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업무능력이 출중하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존경심이 들 때 역시 많습니다.

저는 우리 지원이 기본에 충실하고 성의를 다하는, 모두가 행복한 직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일이 마친가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그다음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법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재판인 만큼 분쟁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1심에서부터 폭넓은 증거조사를 통해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 재판 관련 행정사무 감사에서 강릉지원이 우수 지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매사에 성의를 다하여 당사자들에게 진심이 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릉지원은 지원으로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 간에 화합과 유대가 없다면 차질 소외감이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직원에게 동호회 활동을 권하고 저 역시 마라톤, 테니스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제안하는 영화 번개나 생일 당사자에게 드리는 제가 직접 쓴 손편지 등 역시 일상에서의 소소한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 강릉지원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MINI Intervie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람들의 한마디

산 좋고 물 좋은 강릉에 놀러오세요~



정지은 판사

요즘 커피 애호가들이 많으시죠? 커피의 도시인 강릉에서 저는 바다와 향긋한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안목 커피거리를 추천합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창가에 앉아 향기로운 드립 커피를 마시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진답니다.



이향숙 행정관

저는 소금강을 꼭 즐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금강은 작은 금강산이라는 의미로 강릉 시내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산이에요. 구룡폭포에 이르는 길은 아름다운 계곡과 숲속의 청량한 공기를 즐기면서 갈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박창재 등기과장

신사업당이나 율곡 이이 선생이 모두 강릉 출신입니다. 저는 이 두 분 말고도 허균·허난설헌 기념관에 꼭 가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건 물론,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와 위인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박찬희 실무관

많이들 아시겠지만, 강릉 하면 초당순두부입니다. 물맛이 좋아 더 고소한 풍미를 자랑하는 초당순두부는 강릉에서 먹어야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짬뽕, 청국장, 전골 등 초당순두부를 이용한 새로운 요리도 많이 나오니 꼭 즐겨보세요.



윤정순 참여관

저는 널리 알려진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대관령 옛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강원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에서 평창군 도암면 황계리까지 걷는 길인데 마치 과나리보통을 메고 과거를 보러 가는 기분이 들죠.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강관호 실무관

저는 강릉에서 가장 큰 축제인 단오제를 소개합니다. 단오날을 전후하여 펼쳐지는 강릉의 향토축제로 전국에서 가장 큰 노천 시장인 난장이 들어서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강릉에 오실 때 이왕이면 날짜를 맞춰서 방문해 보세요!



요즘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집에 가면
좋은 부모, 착한 자식
노릇도 해야 하죠.

오늘도 달리는 울마회! 오늘도 즐거운 울곡 마라톤 동호회!

강릉지원 울곡 마라톤 동호회

글_이경희 · 사진_황원





이는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강릉지원 마라톤 동호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요.



새로운
힘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뛰고 달립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바닷길을 달리는 건
우리 울마회만의 특권!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즐거운 우리를 위해서!

강릉지원 울마회
화이팅!!!!



GREAT!

파도, 커피, 고택이 어우러지다

강릉지원 인근 여행지

강릉은 커피 한 잔의 여유가 깃든 도시다. 비릿한 바다 내음, 술 향과 함께
최근에는 은은한 커피 향이 해변을 채운다. 해변 길을 거닐면 파도 소리 너머
고즈넉한 고택이 배경이 되고, 갯 볍은 코스타리카 커피 원두 향이 코끝을 감싼다.

글 · 사진_서영진(여행칼럼니스트)





예전에는 회 한 접시 먹으러 강릉에 갔다.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갓 내린 드립커피 한잔을 위해 강릉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노천카페나 솔숲 벤치에 앉아 커피 한잔 즐기는 풍경은 어느덧 익숙해졌다. 찻집이 들어선 해변은 분주해졌으며, 매년 강릉에서 커피 축제도 열린다. 100여 개를 훌쩍 넘어선 커피 전문점들은 아직도 ‘똑딱똑딱’ 오픈이 현재진행형이다.

강릉은 한 번쯤 사색에 취해 해변을 산책하고픈 로망을 부추기는 곳이다. 서울이라는 복잡한 도심에서 멀어서 좋고, 솔숲, 커피, 고택, 포구의 정취로 여백이 채워져 운치가 넘친다.

아메리카노 한잔의 여유, 안목해변

이방인들이 최근 단골로 방문하는 장소는 안목해변이다. 안목해변은 커피 붐과 함께 덩달아 분주해진 곳이다. 경포에 비해 한적하던 해변은 오히려 그 호젓함 때문에 ‘커피해변’의 타이틀을 꿰찼다. 안목해변 일대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잔을 음미할 수 있는 카페들이 수십여 곳 늘어서 있다. 그리스 산토리니의 건물 모습을 본뜬 카페부터, 여느 유원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노천카페까지 외양은 제각각이다. 안목 커피거리의 태동이 됐다는 커피

1. 강릉의 바다는 파도와 커피향이 덧씌워져 진한 잔영을 남긴다.
2. 300여 년된 전통가옥인 선교장의 활래정.
3. 신사임당과 이이의 사연이 서린 오죽헌.



2

3



자판기 역시 해변의 명물이 됐다.

한적한 오전, 안목해변을 찾은 커피 애호가들은 파도 소리에 취해 고즈넉하게 커피 한 잔을 들이킨다. 굳이 커피 산지인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 순간만은 모두 바다 향 깃든 ‘강릉 커피’다.

강릉은 은은한 커피 향처럼 여운 넘치는 여행지들이 가득한 곳이다. 광활한 바다와 따뜻한 한옥이 대비를 이루는 반전은 강릉 여행의 묘미다. 예부터 ‘동대문 밖 강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릉은 서울 동쪽으로 가장 번성한 고장이었다. 그 운택함에 기댄 오죽헌, 선교장 등의 한옥은 문화적 향취를 머금고 이방인을 반긴다.

오죽헌은 신사임당과 그의 아들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으로 주변으로 ‘오죽(烏竹)’의 유래가 된 검은 대나무가 심어져 있다. 오죽헌 담장 너머로는 화부가 직접 방을 데워주는 전통 온돌방식을 갖춘 한옥마을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오래된 한옥과 숲 사이를 거닐다

오죽헌에서 경포생태저류지를 넘어서면 수려한 옛집이 모습을 드러낸다. 영동지방 최고의 고택으로 여겨지는 선교장이다. 선교장은 300여 년 동안 원형이 보존된 사대 부가의 전통가옥으로 연못 옆 정자인 활래정은 예전 경포호수의 경관을 바라보며 풍류를 즐기던 선비들의 안식처였다.

고택을 나서면 경포의 호수와 바다로 연결된다. 관동팔경 중 으뜸으로 꼽는 경포대와 강릉 여행의 절대 동력인 경포의 바다가 모습을 드러낸다. 경포 해변은 나무 데크로 단장된 솔숲 산책로가 모래사장을 따라 이어진다.

강릉의 바다와 절묘한 궁합을 이루는 게 이 지역 별미인 초당순두부다. 커피 한잔 외에도 초당순두부로 배를 채우는 일정은 강릉 여행자들에게 코스처럼 굳어졌다. 경포와 안목해변 사이에는 할머니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초당두부마을이 자리했다.

곳곳에서 만나는 독특한 박물관들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경포대 옆 참소리 축음기, 에디슨 박물관은 옛 축음기와



4

4. 경포대 해변 주변으로는 깊은 솔숲 산책로가 이어져 있다.

5. 옛 축음기들이 전시된
참소리 축음기 박물관.



5

에디슨의 발명품을 전시 중이다. 왕산면의 강릉커피박물관에서는 로스팅 체험과 함께 커피나무와 옛 커피 제조도구들을 구경할 수 있다. 정동진 인근의 야외 미술관인 하슬라아트월드의 피노키오박물관은 동심으로의 추억 여행을 부추긴다.

강릉해변 북쪽 길은 한적한 7번 국도변을 따라 주문진까지 이어진다. 주문진 바닷가는 최근 드라마 '도깨비'의 배경이 된 이후 연인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오징어잡이 배가 빼곡하게 채워진 주문진항과 해산물이 진열된 주문진 수산시장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강릉 여행의 마무리는 넉넉해진다. ☺

TIP

먹거리

강릉의 세월이 깃든 맛
초당마을 순두부



초당순두부를 빼놓고는 '강릉의 맛'을 논할 수 없다. 골목 어귀마다 초당순두부 간판과 흔하게 마주친다. 최근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알쓸신잡>에서도 강릉 여행과 강릉의 맛은 흠미진진하게 다뤄졌다. 커피와 두부 외에도 '강릉의 맛'을 탐하기 위해 이곳으로 향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순두부를 제대로 맛보려면 초당마을로 향한다. 초당마을의 순두부 식당들은 바닷물을 간수로 쓰고 국산 콩을 이용해 두부를 제조하는 전통방식을 고집스럽게 고수한다. 초당동 두부마을에는 대를 이어 운영

하고 있는 식당 등이 20곳 가까이 들어서 있다. 영업은 딸이나 며느리가 하더라도 순두부를 만드는 일은 굽은 등의 할머니가 직접 나선다. 정성이 깃든 것 건져낸 순두부는 맛이 고소하고 질감이 몽글몽글하다. 한입 털어넣으면 연한 아메리카노처럼 부드럽게 목을 타고 넘어간다.



강릉 시내의 교동짬뽕은 전국 5대 짬뽕집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곳이다. 홍합 속살 등 해산물이 알차게 들어간 짬뽕은 화려한 외관은 아니지만 진하고 담백한 국물로 입맛을 자극한다. 짬뽕면이라는 단출한

메뉴에 밥을 추가로 시켜 짬뽕밥으로 마무리 짓는 게 정석 코스다.

주문진항은 오징어의 집어항이다. 포구에는 오징어 입간판이 걸려 있고 노천 어시장에서도 오징어는 단연 인기 품목이다. 이곳에서 산 오징어를 구입해 오징어회로 먹는다. 횡감을 구입하면 즉석에서 회를 띄우며, 인근에서 초장을 구입해 포구 빈자리에 앉아 회를 맛보는 게 흔한 풍경이다. 1만 원이면 산 오징어 2~3마리를 구입할 수 있다. 주문진 시장의 실비 생선구이 역시 강릉의 맛 계보를 잇는 맛집이다.

〈서소문 법원 연가(戀歌)〉

대법원 서소문 옛 청사 사진전 개최



‘그때 그 시절을 아시나요?’

대법원은 2017년 특별전으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법원 서소문 옛 청사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전 〈서소문 법원 연가(戀歌)〉를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대법원 본관 1층 법원전시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6월 7일 개막식과 지금도 아련한 그때 그 시절을 사진으로 추억해본다.

글_편집부



오늘도 파이팅! ▲

통근 버스로 출근하는 직원들.
1970년 4월



서소문 옛 청사의 밤 ▲

저녁까지 이어진 국정감사로 환하게 불을 밝힌 본관. 1994년 9월



을지훈련 ▲

1973년 02월

마지막 재판 ▶

본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린
마지막 전원합의체 재판.
1995년 10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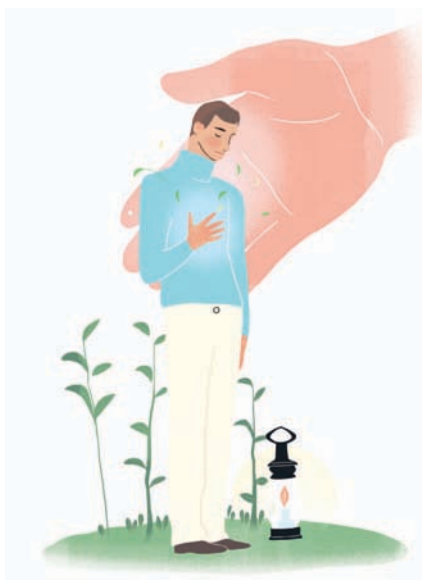
지금의 서울시립미술관이 옛 대법원 청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대법원 옛 서소문 청사는 1928년 일제시대부터 1995년까지 67년간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가 잉태되고 자란 고향 같은 곳이다. 그 역사성과 의미가 큰 만큼 대법원 법원전시관은 2017년 특별전으로 사진전 〈서소문 법원 연가(戀歌)〉를 지난 6월 개최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 않은 소장 사진(72점)과 유물(서소문 청사 정문에 실제 부착되어 있던 현판 등 2점), 법원 직원 및 방문자로부터 받은 사진(4점)과 글귀를 전시하고, 관람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전시를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또 대법원 옛 서소문 청사의 모습을 재현한 포토존을 설치하고, 관람객이 현장에서 사진을 보고 글귀와 그림 등을 추가해 넣음으로써 함께 전시를 완성해가는 참여형 전시로 관람객들의 호평을 얻었다. c

남원지원 서무계장 1년을 돌아보며

글_김정상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행정관



남원지원에는 삼신(三神)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족신, 배신, 테신”입니다.

족신(이병철 계장. 평소에는 별 존재감이 없다가 족구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리고, 위에 러닝셔츠만 입고 피약벌에서 족구 연습을 함)과 배신(김양곤 계장. 테니스를 열심히 치다가 배드민턴으로 전향하고, 실무관들을 포섭하여 남원지원 배드민턴 인구를 독보적으로 늘림)과 테신(손양호 계장. 테니스는 못하는데 종일 테니스 얘기만 하고, 코피까지 흘려가며 스윙 연습을 하는 총각임)이 <법원사람들> 원고로, 스포츠를 테마로 잡아 그중 한 명의 인생역경 스토리를 작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 마감일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삼신이 원고 쓰기를 서로 미루다 포기했으니 김 계장이 주말에 원고를 써야겠다는 사무과장님의 전화였습니다. 그 내용인즉, 현 서무계장이 바쁘니 전 서무계장이라도 원고 숙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평소 즐기는 구름과자를 입에 물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을 때, 등신(최영덕 실무관. 등기업무가 처음인데 열심히 책 찾아보고 남들한테서 신동이라 불리게 됨)이 저에게 와서 아이디어 하나를 주고 갔습니다.

삼신(三神)의 일상을 전국 법원에 널리 알리면 재미있는 테마가 되지 않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스포츠 얘기를 쓰려고 열심히 머리를 굴리다 보니, 사생활을 여과 없이 들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까 하여, 남원지원을 소개하는 의미로 서무계장 1년이라는 테마로 펜을 돌렸습니다.

남원지원은 판사 세 분을 포함하여 전 직원 39명 정도인 소규모 법원입니다. 분위기는 가족 같지요. 워낙 인원이 적다 보니 서로 너무 잘 알고 배려합니다. 그러나 1년에 두 번 있는 사무분담 시즌이 돌아오면, 서로 서무계를 가지 않으려는 흥역을 치릅니다. 자랑할 거라고는 슬하의 딸 셋이 전부인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무계장을 처음 하면서 받은 선물은 대법원에서 나온 시커먼 다이어리였습니다. 딱딱한 조직도 뒤의 1월 달력을 보면서, 뭘 해야 할지 몰라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래도 남원은 낙원이라는 장낙원 지원장(남원 공파 낙원종중 회장.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다 잘하나, 노래는 겁나게 못함. 판 소리는 박자가 맞지 않아도 쫘 함)과 옆집 형님같이 직원을 대해주시는 권오열 사무과장(현 군산지원 집행관, 갑자기 퇴직을 하여 사람을 섬뜩하게 함), 이경란 사무관(현 순천지원 근무, 옆집 누나)과 1주일에 두 번 지원장실에서 결재를 하는데, 평소에 말재주도 없고 계획성도 없는 저에게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습관이 되어 나중에는 할 만했지요.

서무계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였어요. 손님들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준비하고 신경 쓰는 게 큰일이지요.

한번은 전주법원장께서 초도순시를 오시는데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시민과의 대화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 시민들을 어떻게 섭외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본원 총무과에도 전화하고 다른 지원 서무계장과도 통화하다가, 남원시청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서무계장은 법원의 다른 일과는 달리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만 굴리면 스트레스만 받고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체육행사는 하루 즐겁게 갔다 오는 거지만, 서무계 직원들은 미리 계획을 짜고 답사를 다녀와야 합니다. 덕분에 남원의 명소는 많이 다녔지요. 하지만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듯이 행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돌발 상황에 부딪히지요. 춘계체육행사 때는 남원의 제1경인 구룡폭포로 갔습니다. 구룡계곡 코스 중 찡이소(작은 폭포로 명창들이 판소리 연습을 하는 곳)에서 남원의 명창 박성권 계장과 김현숙 계장의 소리 한판을 거하게 들으려는데, 맑은 계곡물에 반했는지 이보형 판사(자칭 지리산이 거부한 남자)가 손을 씻으려다 계곡물에 빠져 미끄러져 내려가자, 판사님을 구하려고 홍짱(안진홍 실무관, 보안관리 대원으로 거울 보면서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함)도 같이 물에 빠졌어요. 순간의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두 명 다 무사했고, 고가의 아이폰만 고장이 나 수리비만 수억 나가고 구룡폭포도 구경 못 했습니다. 다행히 회식장소에서 서로의 무용담을 나누며 웃으면서 술잔을 주고받았지요.

추계체육행사는 거창에서 거창지원 직원들과 함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남에서 판사님으로 모시던 김승휘 지원장이 거창에 계셔서, 법원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이벤트의 제왕인 박성권 계장이 말 탈을 쓰고 분위기를 돋우며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거창 직원들과도 친해져서 별도로 우리 지원의 음악방송(아침·점심에 음악을 들려줌)에 김민경 실무관과 박근아 실무관이 특별 DJ로 참석까지 해주셨어요. 점심시간에 설마 오실 거라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멘트가 흘러나오는데, 깜짝 놀랐지요. 멀리까지 수고하러 오신 두 분 잘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식목일 행사 때는 블루베리 두 그루를 옥상 하늘정원 화분에 심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조금씩 따먹는데,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직원들과 광주에서 열린 야구 경기도 관람하였습니다. 꼴찌를 뺏던 기아타이거즈가 그날은 승리를 했지요. 담배도 끊는다며 보건의소에서 방문하여 진행하는 금연교육도 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실패를 하였습니다.

서무계장을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부분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법원을 소개할 때 제일 보람이 되고, 저도 사회에 조금은 보탬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법원을 처음 접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법정을 바라봅니다. 지원장께도 “법원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판사는 돈을 얼마나 버나요?” 등 엉뚱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법원 홍보물을 주면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가끔 길거리에서 반갑다고 인사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1년 동안 무사히 재미있게 지낼 수 있었던 건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탁구 레슨까지 해 주신 장낙원 지원장님, 팬티만 입고 탁구치던 권오열 사무과장님, 항상 환한 미소를 날리던 이경란 사무관님, 군법원에서 무사히 승진시험을 통과하신 김봉현, 전규성 사무관님, 애기 키우느라 힘드신 김인혁, 백찬 부부, 남원에 여자친구를 두고 간 문영범 실무관과 다양한 이벤트로 즐거움을 주시던 박성권 계장, 뱃속의 애기 키우느라 힘드셨던 천지혜 실무관, 아름답고 미남이신 황진영, 한병춘 실무관, 귀여운 김충모 실무관과 남원을 떠난다고 울고 웃던 이다인 실무관 모두 잘살기를 바랍니다.

엣그제 춘향제 때 직원들과 막걸리를 먹은 것 같은데, 벌써 춘향제도 지나고 초짜로 맡은 경매업무도 4개월이 지나가네요. 글재주도 없고 부족한 제가 갑자기 글을 쓰자니, 조잡한 문체로 저 자신이 훤히 비치어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럽기만 합니다. 남원지원을 소개하는 마음으로 두서없이 자판에 손 가는 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니 널리 양해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

환상적인 영상의 세계, 블루레이

글_김경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블루레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c)는 푸른색 레이저를 이용해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내는 저장매체입니다. 흔히 아는 DVD보다 5배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DVD보다 월등히 뛰어난 화질과 음질을 구현할 수 있는 영상 매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이 단어, 블루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6년 전 저는 좋아하던 축구게임을 하기 위해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게임기를 이용해 영화를 보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영화 ‘아바타’ 블루레이 디스크를 함께 구입해 디스크를 구동시켜 보았습니다. 이 경험은 블루레이와의 강렬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블루레이와의 첫 만남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선명한 화질, 영화 속 장면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앞뒤, 좌우에서 공간감 있게 들려오는 사운드, 처음 접한 블루레이의 모든 것은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신세계를 경험한 느낌에 홀려 저는 블루레이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그 뒤로 영화에 별 관심이 없던 저에게 새로운 취미가 두 가지 생겼습니다. 블루레이를 이용한 영화감상과 블루레이 수집입니다. 영화 ‘아바타’를 통해 블루레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이후, 저는 그 놀라운 화질과 음질에 매료되어 블루레이 디스크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화질이 가장 좋다고 소문난 블루레이, 음질이 가장 뛰어나다는 블루레이를 검색하여 하나둘 모았습니다.

이렇게 블루레이를 한 장, 두 장 사서 모으다 보니 우리나라의 블루레이 시장이 매우 협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블루레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매체입니다. 외국에서는 블루레이로 영화를 보는 것이 일상적인 데 반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DVD가 더 친숙하고 대부분이 블루레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 이른바 레퍼런스 타이틀이나 유명한 블록버스터 영화 위주로 블루레이를 구입할 때는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크게 유명세를 떨치지 못한 영화를 구입하려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블루레이로 발매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개봉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영화들도 블루레이로 발매된 것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중의 대부분 영화가 DVD로 발매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블루레이가 대중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시장 또한 협소한 것은 우리나라에 인터넷TV(IPTV)나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해 영화를 보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블루레이의 판매량도 적을 수밖에 없고, 결국 수익성이 낮아 블루레이 제작사들도 크게 인기를 끈 영화가 아니면 블루레이로 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하는 영화를 블루레이로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영화가 블루레이로 발매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만약 찾는 영화가 국내에 블루레이로 발매되어 있지 않으면 해외 블루레이 판매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을 간 김에 현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블루레이는 기

본적으로 여러 가지 언어로 자막이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발매된 블루레이 중에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것이 꽤나 존재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경우,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등을 이용하면 배송료를 감안하더라도 국내에서보다 저렴한 가격에 블루레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단, 블루레이에는 지역 코드라는 것이 있어서 해외에서 발매된 블루레이 중 우리나라와 지역 코드가 다른 것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6년 전부터 하나둘 수집해온 블루레이가 이제는 그 양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중에는 사놓기만 하고 시간에 쫓겨 미처 감상하지 못한 영화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감상을 목적으로 블루레이를 구입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집 및 소장으로 그 목적이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무엇이 되었든 저의 블루레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여전합니다. 어느덧 제 책장 한쪽에 차곡차곡 쌓인 블루레이들을 바라보노라면, 이제는 영화를 직접 보지 않더라도 그 영화를 제가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뿌듯함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블루레이가 저만의 취미이자 즐거움이 된 셈입니다.

사람들에게 블루레이를 보거나 수집하는 것이 취미라고 하면, 대다수는 저에게 왜 굳이 블루레이로 영화를 보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의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몰입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영화는 극장에서 감상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루레이 디스크의 가격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나 DVD를 구입하는 것보다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블루레이에는 블루레이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DVD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생한 감동, 그리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 이상의 선명한 화질과 풍부한 음량이 그것입니다. 집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은 영화를 최상의 퀄리티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블루레이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레이는 영화뿐만 아니라 공연 실황 영상이나 음악회, 오페라, 뮤지컬,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로 발매됩니다. 웅장한 스케일의 영상을 감상하고 싶을 때 블루레이 하나로 실제 공연의 느낌을 생생히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 팝 가수의 공연장이나 브로드웨이 극장에 가지 않고도 현장의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집에 3D 기능이 탑재된 TV가 있다면 ‘3D 블루레이’로 극장에서보다 현실감 있는 3D 영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블루레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화질과 음질을 제공하는 ‘4K 블루레이’가 나오기도 했는데, 긴 설명이 필요 없이 한번 보면 ‘우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훌륭합니다.

유명한 고전 영화도 블루레이의 뛰어난 화질과 음질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리마스터링’이라는 디지털 복원 작업을 통하여 ‘아라비아의 로렌스’ ‘벤허’ 등 주옥같은 고전 작품들이 놀라운 화질과 음질의 블루레이로 재탄생되었고, 한국 고전 영화의 최고 수작으로 꼽히는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 또한 최근 블

루레이로 발매되었습니다. 이는 최상급의 화질과 음질이 저장된 영상물을 가장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블루레이임을 증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블루레이는 현존하는 저장매체 중에서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도나 습도의 변화는 물론 스크래치에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블루레이 수집가들이 블루레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스페셜 피처’라고 불리는 부가 영상입니다. 간혹 스페셜 피처가 없는 블루레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블루레이에는 스페셜 피처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몇몇 수집가는 스페셜 피처를 얻기 위해 블루레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스페셜 피처에는 감독과 출연 배우들의 인터뷰, 메이킹 필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영화 촬영 당시의 상황과 각 영화의 주요 장면들이 어떻게 촬영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끔은 영화의 본 영상보다 스페셜 피처를 보는 재미가 더 쏠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블루레이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루레이를 살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 또한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블루레이 유저인 제 입장에서는 몹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블루레이에 관심을 갖고 이 훌륭한 매체를 접해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매력적인 일이고, IPTV를 통해 영화를 보는 것 또한 영화를 감상하는 손쉬운 방법이지만, 좋아하는 영화를 블루레이 디스크로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블루레이의 환상적인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자 즐거운 추억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c





나는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헌혈이다. 헌혈을 하고 나면 영화표도 주고 간단한 간식도 주지만 무엇보다도 봉사활동 4시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헌혈을 했다.

헌혈을 많이 해서 은장도 받았지만 봉사 후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 끝에 생각한 것이 재능 기부!

'그래, 이거야!'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없다. 없어도 너무 없다. 뭐가? 재능이 하나도 없다.

체육교육을 전공해서인지 재능 기부도 그쪽으로 관심이 갔다. 전부터 장애인 운동 종목의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많은 종목의 심판 강습회에 참여하여 심판 자격증도 취득했다.

일반 종목의 심판은 조금 딱딱한 느낌이라면, 장애인 종목의 심판은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분위기여서 선수들과의 친밀도도 매우 높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취득한 나의 장애인 종목 심판 자격증〉

장애인 종목	보치아	론볼	육상	수영	컬링	양궁	골볼
심판급수	E급	3급	3급	3급	3급	3급	1급



▲ 2016년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예선전 주심

▲ 2017년 장애인 학생체육대회
(본 경기전 연습)



아! 주말이 심심하지 않겠구나! 봉사도 하고 지방도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 것을 상상했다. 이제 부터는 다양하게 골라가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또다시 바보짓을 했다. 심판 자격증이 있으면 당연히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다.

2015년 장애인 컬링 심판 강습회 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강습회에 참여했다. 심판의 기회는 엘리트 선수 출신들에게 매우 유리했다. 선수 경험 없이 단순히 이론만 알고 접근하면 기회가 없다.

그런 와중에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골볼이었다. 이 종목은 선수들이 모두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엘리트 선수가 심판을 보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다.

골볼? 참 생소한 경기 종목이다. 그러나 골볼은 장애인올림픽(Paralympics) 정식 종목이고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골볼 강국이다. 이 종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소리의 경기’라고 할 수 있겠다. 시각장애인이 소리가 나는 공을 가지고 상대팀 골대에 골을 넣는 경기다.

골볼은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다. 시각장애인의 체력을 향상하고 스포츠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재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관심이 없다. 더욱이 장애인 종목은 어떨까? 정말 없다. 특히 골볼 경기는 정말, 정말 관심이 없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가족들이 전부일 정도다.

그래도 그날은 캄보디아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국의 골볼 선수들을 보러왔다. 그래서 다과도 많이 챙겨주며 한국과 골볼을 적극 홍보했다.

JUST DO IT



관중이 너무 많다.



관중을 위한 점핑댄스 봉사자 공연



아이슈이드 착용 (빛이 투과되지 않는 고글)



한국사람을 찾기 (무지 고산로 문제입니다)

선수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전맹인 선수와 빛과 사물을 볼 수 있는 선수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 모든 선수가 아이패치와 아이쉐이드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한다.

특히 나는 골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경기장에서 고글(아이쉐이드)을 하고 수비 자세를 취했을 때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연승 선수를 제일 좋아한다.

“이연승 선수! 안녕하세요! 팬입니다.”라고 인사했다. 그때 그 선수의 답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정말요! 저를 아세요! 팬이라고요!”라고 말했다. 그 후로 나의 목소리를 정확히 기억해준다.

골볼을 만난 것은 참 행운이다. 이 스포츠를 통해 봉사를 한다기보다 선수들을 보며 행복한 기운을 팍팍 받는다.

이러한 심판 봉사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열정과 밝은 모습에 더 많은 힐링이 되고, 자기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추후에는 이를 계기로 골볼 국제심판 자격증에도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나 영어가 문제다. 이론시험도 영어, 실기 시험도 영어로 진행된다. 내 인생에서 영어가 가장 큰 문제다. 오래 걸리겠지만 국제심판 자격증을 취득하여 패럴림픽 심판으로도 참여해보고 싶다.

지금까지 봉사라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희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한 후에는 아니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얻는 것이 더 많다’가 맞는 것 같다.

이러한 봉사는 어떨까? 비인기 종목인 장애인 운동 경기의 관중으로 참여하기, 장애인 운동선수의 팬이 되어주기, 외국인에게 미소 짓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하기(여기는 한국! 당당하게 한국말로) 등.

나이키 스포츠 용품 광고 문구가 생각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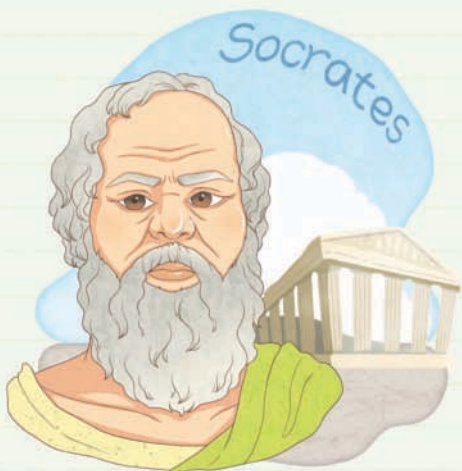
“JUST DO IT”

재미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



선배 국제심판과 함께 (가고있다 장애인올림픽 경기)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어느 시인은 7월을 청포도가 익어 가는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7월을 ‘법을 생각하는 계절’로 부르고 싶습니다. 7월 17일, 바로 제헌절(制憲節)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법을 만든 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글_엄민용 기자(경향신문/ 前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부회장)

제헌절 그리고 7월 17일

제헌절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맘껏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약속받은 날이죠. 하지만 이것 아세요. 실제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은 그날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어요.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로 구성된 후 5월 31일 첫 국회를 열어 이승만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한 제헌국회는 가장 먼저 헌법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광복 후의 혼란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민주주의는 법으로 세워지고 법으로 지켜지는 것이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해 8월 15일까지 국내외에 독립을 선포해야 할 필요성에 쫓긴 국회는 헌법 제정을 서



둘렀고, 일본의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만든 우리나라 첫 헌법이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승만 의장이 밝힌 공포문에도 ‘단기 4281년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지요. 하지만 이 법이 서명·공포된 날은 그로부터 닷새 뒤인 7월 17일입니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하루가 급한 마당에 왜 닷새를 허비(?)했을까요? 7월 12일에 만들어진 헌법을 닷새 뒤에 공포한 것과 관련해 ‘조선이 건국된 날과 때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태조실록> 등을 보면 1392년 7월 16일 배극렴과 정도전 등이 고려 왕의 옥새를 받들어 이성계의 집에 물려가고, 다음날 이성계가 수창궁에서 새 왕으로 등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선이 개국한 날은 7월 17일이 맞고, 북쪽과 분단된 상황에서는 조선 왕조의 법통을 이어받는 의미가 중요하므로, 닷새를 늦춰 역사적 상징성을 만드는 일도 그럴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록 등에 나오는 날짜는 음력입니다. 우리가 양력을 쓴 세월은 100년 조금 넘습니다. 사료 속의 1392년 7월 17일을 양력으로 따지면 그해 8월 5일입니다.

따라서 조선 건국일과 날짜를 맞추기 위해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한 것이 사실이라면, 얼핏 참 부질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번듯한 나라를 세우려 한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법과 관련한 진실과 오해

그건 그렇고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법과 관련해 아주 엉뚱하게 쓰는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것이지요.

“어제 주차위반으로 ‘벌금 딱지’를 떼었다” 따위로 쓰는 ‘벌금’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러 분도 주차위반으로 벌금 딱지를 떼인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으시겠지요. 주차위반으로는 벌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니까요.

벌금(罰金)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 부과하는 돈”으로, 일종의 재산형입니다. 이를 내지 못했을 때는 노역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즉 형법이 규정하는 형의 일종인 것이죠. 그러나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이나 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국가나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상의 벌”은 ‘과태료(過怠料) 부과’입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주차위반을 했을 때 ‘돈’을 징수하는 곳은 법원이 아니라 지자체입니다. 이런 돈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즉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 처분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이 부과하며, ‘벌금’은 형의 일종으로 법원이 그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또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과속을 하는 경우, 노상방뇨를 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등도 절대 벌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이들 행위는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범칙금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지만 금액을 완전히 납부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튼 제헌절이 있는 7월뿐 아니라 1년 내내 우리 국민 모두 법과 질서를 잘 지켜 과태료·벌칙금·벌금 따위를 내는 일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용어 중 비슷한 소리 다른 의미

법률 용어에는 또 글꼴이나 소리가 비슷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낱말도 많습니다. 법원을 무대로 한 드라마나 영화 등에 많이 나오는 ‘신문’과 ‘심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퍼세요? 여러분은 ‘신문’과 ‘심문’을 확실히 구분하시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신문을 쓰고, 터러 판사의 말에 심문을 쓸 수 있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문(訊問)이란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뜻합니다. 신문의 ‘신(訊)’이 ‘물을 신’입니다. 결국 ‘신문’의 본질은 ‘문답’입니다.

반면 심문(審問)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법원, 즉 ‘판사’만 심문이 가능합니다. 심문의 ‘심(審)’이 ‘살필 심’으로, 판사가 당사자 등에게 진술 기회를 주고 심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심문’이 쓰이는 대표적 사례가 구속 여부를 두고 실질심사를 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이지요.

결국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재판정에서 어찌고저찌고 하며 문답식으로 오가는 대화는 모두 ‘신문’입니다.

‘공포’와 ‘공표’도 잘못 쓰는 사례가 많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구분은 의외로 쉽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차이가 명확하거든요. ‘공포하다’와 ‘공표하다’는 둘 다 “알린다”는 뜻을 나타내지만, ‘공포하다(公布--)’는 “(법률 용어로) 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린다. 관보(官報) 등 정부의 정기 간행물에 게재해 알린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공표하다(公表--)’에는 법률 용어라는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결국 법률 등을 만들어 세상에 알리는 일에는 ‘공표’가 아니라 ‘공포’를 써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배상’과 ‘보상’도 참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헷갈려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리합니다.

우선 ‘배상(賠償)’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그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위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갚는 것이죠.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녀는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나타나자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따위가 ‘배상’을 바르게 쓴 사용례입니다.

이와 달리 ‘보상(補償)’은 “남에게 끼친 재산상의 손해를 갚거나, 적법한 행위를 했지만



그로 인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생겼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메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공공시설물이나 신도시를 건설할 때 현지 땅을 수용합니다. 이는 위법은 아니지만 토지주인 입장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땅 주인에게 지불하는 돈이 토지보상금입니다.

누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을까?

자, 그건 그렇고요. 법과 관련한 재미난 ‘토막 상식’ 하나 들려 드리고 오늘 얘기를 줄일 까 합니다.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표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남겼다고 아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가 도모오가 1930년대에 출판한 <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쓴 내용이 마치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와전된 것입니다.

또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내용 중 헌법에 대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했는데요. 이때 일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실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며 독약을 먹었다”는 내용은 준법사례로 연결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표현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 법 집행을 정당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재혼 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나요?

글_편집부



A녀는 이혼 후 자녀를 데려와 키우다가 최근 B남과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혼할 경우 자신의 자녀와 B남의 성(姓)이 달라 학교 등에서 재혼 가정임이 알려지면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A녀는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인 B남의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衡量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스133 결정) 성·본 변경 허가심판이 확정되면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가 됩니다. 그러나 새아버지와 법적인 부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친부와 법적인 부자관계가 유지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 (민법 제908조의 3)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고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그 친생부모(전 남편)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사례의 경우 A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본 변경심판청구를 한 후 허가를 받아 B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B남이 A녀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자신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백설공주와 왕자가 법정에 선다면?

천천고등학교 특수학급생의 대법원 견학

글_김화숙 · 사진_장병국



‘잠자는 숲속의 백설공주에게 왕자가 키스했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아름다운 동화 속 ‘백설공주와 왕자’의 이야기가 법정으로 가면 사뭇 분위기가 달라진다. ‘공주의 허락 없이 키스를 했으니 성추행이다’ ‘위급한 상황에 놓인 공주를 살리려고 했으니 긴급피난이었다’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간다. 지난 6월 1일 대법원 법원전시관 법정체험실에서는 ‘백설공주와 왕자’를 놓고 실제 모의재판이 열렸다. 이날 대법원 견학을 온 천천고등학교 특수학급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모의재판은 진지하게 펼쳐졌다. 학생들은 자신

이 맡은 판사, 검사, 피고인 등의 역할에 어울리는 목소리와 표정을 지으며 법정 분위기를 더 극적으로 몰고 갔다.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 왕자가 너무 못생겼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의 허락 없이 키스를 했으니 이건 성추행입니다.” 백설공주의 주장에 왕자의 변호인도 강하게 반박했다.

“왕자의 행동은 공주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긴 잠에 빠진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긴급피난이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 판사는 법률상 긴급피난에 근거해 백설공주를 구출한 왕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짹짹’ 큰 박수 속에 모의재판이 끝나자 학생들은 “다시 한번 하면 안 돼요?”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대법원 견학으로 모의재판을 체험한 천천고등학교 특수학급생들은 법원전시관, 대법원 로비의 정의의 여신상과 가인 김병로 선생의 흉상, 소법정과 대법정을 둘러보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을 오늘도 실감했네요. 대법원 견학으로 법원과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의재판을 보면서 학생들과 다시 한 번 ‘착하게 살자’고 다짐했어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길 기대합니다.” - 김종표 교사

“오늘 모의재판에서 판사역을 맡았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뉴스로만 보던 대법정을 실제로 보니 엄숙함과 위엄이 느껴졌고, 대법정에 서시는 대법관님은 모두 열세분이라는 것도 새로 알게 되었어요.” - 박민혁 학생



어린이 소식지

2017 JULY |

<http://we.scourt.go.kr/kids/board/BoardListAction.work?gubun=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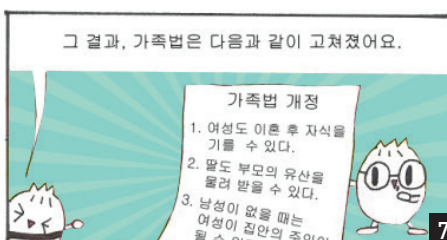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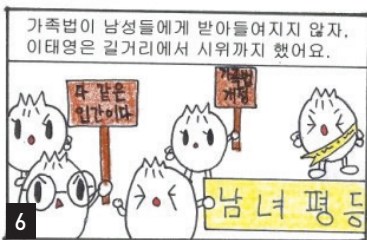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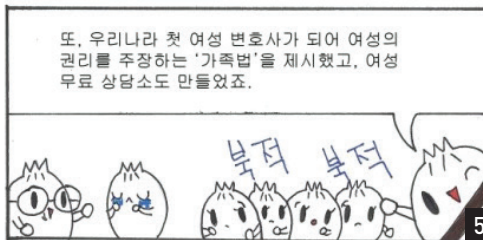
| NO. 02



남녀평등을 외쳤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변호사

이태영 이야기

이태영 변호사
(사진: 네이버)



드레



글·그림
서이초 5학년
정지은

재미있는 정의의 여신상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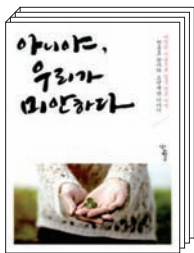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어요. 정의의 여신의 유래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상을 비교해볼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신들의 왕 제우스와 율법의 여신 테미스(Themis)의 딸이에요. 로마 신화에는 정의의 여신이 유스티티아

(Justitia)로 나오는데 모두 정의의 여신을 뜻한대요. 오늘날 정의를 의미하는 Justice는 Justitia에서 생겨났다고 해요. 우리나라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과 다른 나라의 정의의 여신상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요. 한번 비교해볼까요? 유스티티아를 모델로 한 정의의 여신상은 보통 왼손에는 '평등의 저울'을 그리고 오른손에는 이성과 정의의 힘을 상징하는 양날의 '칼'을 든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나타내며, 칼은 그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의이지요. 유혹을 받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 눈가리개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상은 로마 신화 속의 정의의 여신상과 달리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어요. 눈을 가리지 않았지요. 법전은 법전 속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저울과 법전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본다는 의미라고 해요.



잠원초 5학년
권민준

판사님께 보내는 편지



천종호 판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있는 해솔초등학교 6학년에서 재학 중인 안수빈입니다. 판사님의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랴'라는 책을 읽고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친척이 보살피다가 지쳐 소년원에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심지어 엄마가 제 자식을 소년원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내용 등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부모님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 책을 보며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소년 범죄자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용서해라'를 외치게 하기도 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감동적인 시나 노래 가사의 일부분을 읽게 한다든지 직접 편지를 쓰게 해서 읽게 하는 부분들이 참 특이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 덕에 가해자들이 못 느꼈던 죄의식을 느끼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경우도 있었고,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부 판사의 판결은 한 소년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나는 늘 법정에 들어가기 전 법복을 입은 채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한다. - 본문 중(27쪽) -"



해솔초 6학년
안수빈

의정부지방법원에는 두 명의 원더우먼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안내 도우미의 활약상



의정부지방법원의 역사를 보는 듯 낡지만 정감 가는 건물들 사이로 종합민원실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입구로 들어서니 곳곳에 놓인 화분만큼이나 화사하고 깔끔한 민원실 내부가 민원인을 반갑게 맞이한다. 게다가 이곳을 찾는 민원인들에게는 원더우먼 같은 두 명의 민원안내 도우미가 미소 짓고 있으니 더욱 훈훈한 분위기가 감돈다. 글_강나은·사진_장병국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지역은 경기북부 및 강원도 일부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곳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만 해도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넘는다. 남양주, 구리, 가평, 포천, 연천, 동두천은 물론이고 강원도 철원 등 먼 곳에서까지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다 보니 이른 시간부터 붐비기 시작한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들,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 등 민원인의 종류도 참 다양하다.

그렇지만 종합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는 두 명의 원더우먼이 있기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타나는 원도우먼

종합민원실의 민원안내 도우미 장상희, 박효주씨의 활약상은 법원 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 이재혁 접수행정관은 얼마 전 가슴이 따뜻해지는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 한 아이가 이혼서류를 접수하러 온 엄마의 손을 잡고 종합민원실로 들어섰다. 엄마는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아이를 잠시 맡기고 서류 접수를 위해 창구로 향했다.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감기약을 먹은 아이는 꾸벅 꾸벅 졸기 시작했는데, 그 때 박효주씨가 아이의 옆자리에 앉아 자꾸만 쓰러지는 아이의 고개를 조심스레 받쳐주었다. “5분, 10분도 아니고 20여 분을 그렇게 아이의 고개를 받쳐주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민원인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모습에 감탄할 때가 많아요.”

민원안내에서 무적이 되게 한 두 사람의 시너지효과

두 사람이 소통하며 뿜어내는 시너지 효과 또한 대단하다. 과거 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녹아있는 장상희씨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먼저 다가가는 친절함으로, 간혹 업무 이상의 요구를 하는 민원인에게는 예의를 갖춘 단호함으로, 박효주씨는 외국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구글 번역기까지 써가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적극성으로 각자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실 두 원도우먼은 법원에 근무하기 전에는 육아로 인해 일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경험과 능력은 법원에서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민원인들은 더욱 친절하고 쉽게 수준 높은 법원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

MINI Interview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이 커요”

장상희 민원안내 도우미



종합민원실에 민원업무를 보러 오시는 민원인 중 대부분이 서류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 그 절차에 대해 잘 모르셔서 당혹하시곤 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도 ‘법원’이라는 공간을 어렵게 생각하셔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서 일을 잘 보고 가시면 보람이 크죠. 앞으로도 종합민원실을 찾는 많은 민원인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종합민원실 직원을 덕분에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박효주 민원안내 도우미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지만 외국인들의 개명이나 채권압류 해지 신청 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찾아오신 민원인에게도 낯설고, 저에게도 낯선 업무를 여쭙보셔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도와드릴려고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재미있게 일할 수 있었던 건 옆에서 저를 늘 도와주시는 언니와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뜻한 감성으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호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장



민원안내 도우미 두 분의 활약 덕분에 종합민원실 분위기가 더욱 밝고 환해졌습니다. 법원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종합민원실을 편안한 공간이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 외에도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두 분을 포함해 35명의 종합민원실 직원 모두가 각자 사명감과 따뜻한 감성으로 민원인들을 대대접해서 실장으로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일에는 스마트하게,
주말에는 편안하게

반전 스타일의 완성!

심하숨

수원지방법원 실무관

법원 사람들의 새로운 스타일 도전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로, 헤어부터 의상까지 스타일 변신의 기회를 드립니다.

총무과 서무계에서 행사 지원을 맡고 있는 심하숨 실무관은 '복장과 메이크업은 무조건 단정하게'라는 목표로 스타일링을 하다 보니 주중에는 지루한 스타일, 주말에는 편안한 스타일만 찾게 된다고 한다. 스마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주중 스타일, 편안하면서도 예쁜 스타일을 완성할 수는 없을까? 그 난제를 풀기 위해 심하숨 실무관은 스타일링 Q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글_강나은·사진_이성원

매일같이 하는 고민, 오늘은 뭐 입지?

심하숨 실무관의 고민은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이 하고 있는 스타일 고민이 아닐까 싶다. 올해로 2년 차인 심하숨 실무관은 매일 겪는 자신의 스타일링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사실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평소 제가 입고 다닐 수 있는 스타일링을 배워가고 싶어요.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거의 기본적인 H라인 스커트 정장만 입고 다니는 데요. 일을 하기에는 복장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게다가 제 나이에 맞기보다는 너무 성숙해 보이게 입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평범한 스물일곱 살 직장인에게 맞는 오피스 룩을 알고 싶어요.”

heels을 신고 뛰어다니느라 뒤통치며 발가락은 상처투성인데다, H라인 스커트는 오히려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편할 정도로 답답하다. 게다가 막상 주말이 되면 답답하지 않도록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니 너무 예쁘지 않은 옷만 입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 이제는 예쁜 옷을 입을 시기가 다 지나가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에만 입을 수 있는 예쁘면서도 편안한 스타일을 찾아서 주말에 입고 다니고 싶어요.”

메이크업 또한 매일 하지만 매일 마음에 안 들기 마련이라 전문가의 손길을 보고 배워가겠다는 학습 의지가 넘치던 그녀는 인조 속눈썹을 붙인 눈을 자꾸만 거울에 비춰보며 ‘이렇게 메이크업을 제대로 받아보기는 처음’이라며 신기해했다. 이렇게 스타일링 Q에 지원하기까지는 바로 옆자리와 뒷자리에 앉은 두 선배님의 영향이 컸다.





“함께 차를 마실 때 선배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셨어요. 나중에 서울에서 근무를 하면 어떤 부서에서 근무해보고 싶냐고요. 제가 평소에 글 쓰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법원 내에서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면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스쳐지나가는 말을 들으시고는 선배님께서 스타일링 Q에 저를 추천해주셨더라고요. 우선 사보에 한 번 출연해보면서 경험해보라는 말씀과 함께요. 처음에는 괜히 흑역사 하나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손사래를 쳤는데, 다른 선배님께서도 ‘몸만 가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며 ‘나중에는 다 추억으로 남는다’고 강력 추천해주셨죠.”

그녀는 이렇게 스타일링 Q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준 황대환, 조원득 선배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덕분에 오늘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을 이었다.

크고 작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느끼는 보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년 전, 그녀는 2015년 7월에 입사해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를 거쳐 현재의 부서인 총무과 서무계에 오게 되었다. 그녀가 서무계에서 주로 하는 일은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일로, 인사이동 때마다 있는 공식적인 행사들을 포함해 내외부의 의전행사와 소통행

사들을 챙긴다. 직원들 사이의 친목을 장려하기 위한 연극·공연 등의 관람과 식사 준비 등 내부 소통 행사부터 국민에게 더욱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하는 외부 소통 행사까지 서무계 행사지원팀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그녀는 이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로 ‘하이스쿨’을 꼽았다.

“하이스쿨 행사는 일주일 동안 판사님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학교 밖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사진 촬영을 하면서 렌즈를 통해 본 아이들의 웃음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다들 학창시절에 겪은 문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법원에서의 행사를 통해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다시 학교를 열심히 다니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니 무릎하더라고요.”

이 밖에도 크고 작은 행사 하나하나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는 그녀는 처음에는 각각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 보편적인 법원에서 선배들과 함께 모여 일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좋단다.

“저는 다른 회사에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법원의 분위기는 일반적인 회사 분위기와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뒷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좋고요. 인사이동이 잦아 보니 부서 간·지역 간에도 모르는 사람이 없이 ‘법원 가족’이라고 부를 만큼 친해질 수 있다는 점도 법원만의 장점이예요. 저 역시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신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선배님들 덕분에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지금은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곳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43기 동기들도 마음속으로 늘 응원해요.”

그녀는 이날 스타일링 Q에서 그동안 고민해온 스타일링의 답을 찾았다.

“처음에 입은 원피스 스타일링이 인상 깊어요. 제가 하늘하늘하고 여성스러운 옷을 그동안은 입어본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여행 갈 때 한 번쯤 이런 스타일의 옷도 사 입고 예쁜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스물일곱 살, 직장인으로서도, 그녀 자신으로서도
성공하고 싶은 그녀는 오늘 스타일링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듬뿍
충전해 돌아갈 수 있었다. ○○



심하숨 실무관을 위한 스타일링 TIP

Fashion



첫 번째, 심하숨 님 이미지와 어울리는 여성스럽고 여러여리한 느낌의 플라워 패턴 핑크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앞뒤로 언밸런스하게 떨어지는 길이로 우아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 어깨 트임은 답답하지 않은 동시에 슬림해 보이도록 해줍니다. 여기에 미니백을 매치하면 더욱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늘하늘한 원피스 소재에 어울리는 내추럴한 웨이브 컬러 우아함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원하는 스타일로 꼽으신 화이트 셔츠와 블랙 스커트의 정장 차림입니다. 단 너무 깔끔한 디자인은 평범한 회사원 스타일을 떠올리게 할 수 있어 그 대신 편칭 블라우스와 플레어 스커트로 더 여성스럽게 연출했습니다. 편칭 블라우스 소매는 프릴 스타일로 페미닌한 느낌을 주고, 소매와 어울리게 다리가 날씬해 보이도록 살짝 짧은 기장의 블랙 스커트를 매치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단정하면서도 귀엽고 또 스타일리시해 보여 일상적인 스타일링에 적용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 에스닉한 패턴이 돋보이는 블라우스와 화이트 팬츠, 스트랩 샌들로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캐주얼한 스타일로 오프슬더 느낌까지 연출할 수 있는 2way 블라우스는 타이트하지 않아 편안하게 입기 좋습니다. 상의가 루스한 핏인 만큼 하의는 짧게 연출하면 더욱 귀여워 보입니다.

Hair & Make up



얼굴형도 예쁘고 이목구비도 예쁜 심하숨 님에게는 과하지 않지만 또렷해 보이도록 하는 아이 메이크업과 여성스러우면서도 귀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볼러셔를 이용했습니다. 피부는 요즘의 더워지는 날씨에 맞게 살짝 유분기를 잡아주었는데요. 헤어 또한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기본으로, 여성스러워 보이도록 한쪽으로 땀거나 묶어 다양하게 연출해봤습니다.

tip

매력적인 이목구비가 돋보이는 심하숨 님은 화사하고 컬러풀한 의상이 잘 어울려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타입이신데요. 에스닉한 느낌도 잘 어울려서 더 화려한 패턴이나 컬러감이 돋보이는 의상도 무리 없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기존의 깔끔한 스타일도 좋지만 좀 더 스타일리시한 의상과 센스 있는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기존보다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 장빛나 스타일리스트 -

의리!
정의!



“나는 의리에 살고 정의에 산다!”

배우 김 보 성

“의리! 정의!”

TV 화면에 나올 때마다, 팬들과 ‘셀카’를 촬영할 때도

실 새 없이 ‘의리’를 외치는 배우가 있다.

전셋집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수억 원을 기부하고,

소아암에 걸린 어린이들을 위해 격투기에 도전했다

실명 위기에 놓이기도 한 배우 김보성이다.

글_이충진 · 사진_이충진, 연합뉴스

Q. 가명이 ‘김정의’다(실제로 김보성은 자신의 SNS 등의 프로필에 ‘김정의’라는 가명을 사용한다). 의리와 정의를 신념으로 갖게 된 계기가 있다.

의리나 정의, 사실 한 맥락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의로운 의리’다. 나는 3단계의 의리를 실천하는 것이 곧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첫 번째는 ‘우정의 의리’다. 밑바닥의 의리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공익을 위한 정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도움을 주는 의리. 곧 실천하는 행동이다. 이는 결국 나눔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나눔의 의리’다. 목적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의리다. 공익을 위한 정의가 가슴에 있다면 나눔의 의리를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에 생기는 의리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Q. 이른바 ‘13대 1’의 격투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된 일화가 유명하다.

20대 초반, 김홍신 선생님의 ‘인간시장’을 읽었다. 주인공 장충찬은 불량배 3명과 격투를 벌이다 경찰서에 갔는데, 증인이 없어 결국 쌍방폭력으로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된다. 하지만 신념이 있었기에 후회하지 않는다. 나도 장충찬이 되고 싶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것이 내가 배우가 된 계기다. 불량배 13명과 싸우게 됐을 때도 꼭 이런 상황이었다.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됐지만 이 또한 내가 가야 할 길로 인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왼쪽 눈이 안 보이면서 장애인들의 힘든 삶과 고통을 알게 됐다. 이를 대변해주고 싶던 마음이 지금의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소아암 등 난치병 환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직 할 일이 많다.

Q. 선배 배우 반열에 올랐다.

현재의 배우들은 예전과 달리 다양한 방식의 많은 미디어를 접하게 된다. 우리 시절의 이른바 ‘딴따라’와는 달라졌다. 어떻게 보면 신분상승이다. 그만큼 ‘공인’으로서 책임이 더욱 커졌다. 청소년들의 정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만 한다. 물론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배우로서의宿命이다. 화려하기만 한 연예인의 이미지보다는, 시대 흐름이 바뀌면서 일반인보다 더욱더 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특히 기억에 남는 배역이 있다면.

바라는 삶과 역할은 거리가 있었던 것 같다. 맡았던 형사 역할 중에서도 준법정신이 그렇게 투철한 배역은 없었다 (웃음). 2010년 러시아에서 ‘60억 분의 1의 사나이’ 표도르와 함께 촬영한 <영웅, 살라맨더의 비밀>이 그나마 가장 정의로운 역할인 것 같다. 국정원 직원으로서 악의 세력을 응징하는 역할이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할 때가 많다.



〇〇

의리와 정의는
결국 사랑이다. 사랑이 중심이
돼야 한다. 사랑은 곧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중심으로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〇〇



Q. ‘정의 배우’로서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지난해 종합격투기 로드FC에 도전했다. 그나마 보이는 한쪽 눈을 강타당한 뒤 주저앉았다. 3분 동안 앞이 전혀 보이지 않던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물론 가족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내가 사회적 약자들과 해온 ‘의리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두려웠다. 하지만 곧 희미하게 앞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는 하늘에도 맹세한 그 약속들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가장 기뻐다. 내 남은 배우로서의 삶은 그 약속들을 지키는 삶이 될 것이다.

Q. 1966년생, 하늘의 뜻을 이해한다는 ‘지천명’이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생각한다. 삶의 희망을 주는 특화된 연예인으로서는 많은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준법정신을 갖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공인 중의 공인’으로 살고 싶다. 지난 격투기 대회 직전 대기실에 있는데 챔피언 권아솔 선수가 성경을 읽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나도 옆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다.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경기를 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됐다. 눈 주위가 조금 함몰되는, 배우로서 아픈 상처가 남긴 했지만 정의의 큰 그림이 이 모든 것을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Q. 독자들은 말 그대로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리와 정의는 결국 사랑이다. 사랑이 중심이 돼야 한다. 사랑은 곧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으로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나는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 간혹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읽어보면 ‘먼저 가족에게나 잘하라’는 글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전혀 반대다. 나의 기부와 봉사는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다. 모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 사랑이 있다면, 법을 지키라는 말은 굳이 따로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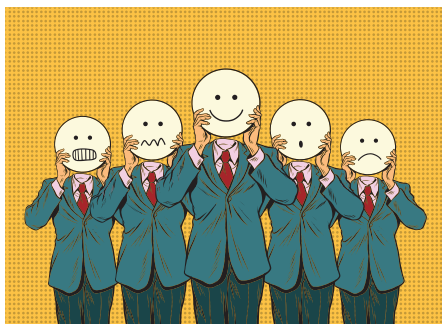
불안과 우울 이렇게 대처하세요!

글 윤대현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저서로는 <윤대현의 마음성공>, <마음 아프지 마> 등이 있으며,

라디오 <윤대현의 마음연구소>를 진행하고 있다.



요즘 저를 찾아와 불안과 우울감으로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궁금증들을 정리해봅니다.

Q. 불안과 우울은 병적인 감정인가요?

불안과 우울은 그 자체로 병적인 감정이 전혀 아닙니다. 먼저 불안은 생존과 연관된 감정 신호입니다. 위기가 다가온다고 느껴질 때 위기관리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불안감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험 불안입니다. 시험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는데 시험을 잘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걱정 스트레스 이론이라 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뇌 기능이 최대의 효율을 낸다는 것인데요. 시험에 대한 적절한 불안이 있어야 성적도 잘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불안 자체는 생존과 관련된 소중한 감정 신호지만, 불안이 과도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우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은 무언가 큰 결핍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우울한 느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느껴지는 기본적인 감정이 '우울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자체에 본질적으로 우울한 면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Q. 일반적인 불안 우울과 과도한 불안 우울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울과 불안감이 내 삶의 여러 기능에 실제적인 저하를 지속적으로 가져오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인 경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며칠 정도 공부에 집중을 못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장기간 지속되어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의학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공포가 심해져 자동차 운전이 힘들어진 경우도 불안으로 삶의 기능이 떨어진 예입니다.

Q.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명인들이 불안장애로 고생하거나 잠정 은퇴까지 선언하다 보니 불안장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불안장애가 더 큰 이름입니다. 불안장애라는 가족 이름 안에 여러 식구가 있는데 공황장애, 광장공포, 특정공포장애, 사회공포장애, 범불안장애입니다. 그래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는 구분할 진단명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불안장애 중 하나가 공황장애인 것입니다. 이 중 공황장애의 특징은 패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크나큰 공포와 불안이 엄습하는데 심장이 정신 없이 뛰고 숨이 가쁘고 팔다리가 저리며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패닉이기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 검사를 하면 신체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Q. 우울장애는 기분이 심하게 우울한 것인가요?

우울장애라는 용어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우울한 감정보다는 다른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서 내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화불량 같은 신체 증상입니다. 몸이 아픈데 검사상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고 불면, 불안, 불면증 같은 스트레스 증상이 함께 있다면 우울증으로 인한 신체 증상이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Q. 약물치료라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임시방편은

아닌지요? 중독되거나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요?

불안·우울 증상이 심할 때 최선의 치료법은 약물치료와 심리요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우울이 커지다 보면 부정적인 부분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치료법을 찾다 보면 약물 부작용이 눈에 더 크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로 마음병이 치료될까 하는 효능에 대한 의심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약물치료를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커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효과도 효과지만 정신과 약물



의 부작용 부분이 현저히 개선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울·불안 증상이 불편하다면 전문가와 약물 투여가 필요한지 충분히 상의할 것을 권합니다.

Q.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닌 다소 불편한 불안·우울 증상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불안·우울의 가장 좋은 대처법은 뇌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뇌는 지치면 불안, 우울 정도가 높아집니다. 이럴 땐 ‘내 뇌가 충전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뇌를 다시 에너지 넘치게 충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일을 줄이고 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전은 뇌를 즐겁게 해줄 때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 마음을 나눌 때, 운동을 포함하여 자연을 즐길 때, 그리고 문화적인 콘텐츠에 몰입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따뜻한 에너지가 다시 차오릅니다. 어찌 보면 뇌 충전은 잘 놀아주는 활동입니다. 노는 것도 공부처럼 학습이 필요하고 일처럼 훈련이 필요해서 자주 해야 익숙해지고 노련해집니다. 잘 놀아야 뇌 안의 충전 장치도 잘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전 장치가 성공의 필수 조건인 창조적 사고와 공감 소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잘 놀아야 성공도 할 수 있단 이야기인 셈입니다. ㉔

방송으로 들어온 인문학 트렌드

〈알쓸신잡〉, 인문학의 대중화? 상품화?

바야흐로 인문학 트렌드라고 해도 될 법하다.
작년 말부터 방송이 그저 오락이 아닌 지식과
정보를 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문학을 소재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방송으로까지 들어온 인문학 트렌드,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글_정덕현(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의 준말인 tvN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은 작가 유시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소설가 김영하, 과학박사 정재승이 국내의 한 장소를 정해 여행을 하며 지식 수다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사실 인문학이라는 소재가 예능 프로그램과 만나 얼마나 재미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재미의 차원을 너무 오락에만 맞춰왔다는 걸 확인시켜준다. 각자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해박한 이들이 이야기 저 얘기로 마구 헤집으며 쏟아내는 지식의 수다는 한번 들으면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시청자들을 몰입시킨다.

예능으로까지 들어온 인문학에 대한 상반된 시선

방송에서 인문학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쓸신잡〉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데서 쉽게 확인된다. 예를 들어 tvN의 〈어쩌다 어른〉 같은 프로그램은 애초 어른들의 다양한 취향을 담은 오락적 성격으로 시작했지만 차츰 강연 프로그램으로 변모했다. JTBC의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프로그램은 애초 〈차이나는 도올〉이라는 제목으로 도올 김용옥이 중국 관련 지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에서 확장되어 아예 다양한 강연자가 나와 인문학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했다. tvN은 〈수업을 바꿔라〉 〈우리들의 인생학교〉 같은 프로그램들을 신설해 인문학 트렌드를 전면에서 이끌어가고 있다. 이처럼 예능으로까지 들어와 대중의 호평을 받는 인문학 트렌드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양 갈래로 나뉜다. 지나치게 엄숙주의와 권위로 흐르던 인문학에 보다 가볍게 접근해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이 있는 반면, 너무 가벼워진 ‘짜구려 인문학’으로 ‘상업화’된 것일 뿐 인문학의 본질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이런 상반된 반응은 이미 출판가에 등장한 인문학 트렌드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채사장이 써서 초베스트셀러가 된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이하 지대넓얏)’은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 폭넓은 인문학을 소재로 했지만 그 깊이는 수박 겉핥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인문학의 ‘스낵컬처화’라는 이야



인문학의 무게에 짓눌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라도 폭넓게
다양한 인문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 건 소중한 일이다.
하지만 그 ‘넓이’가 주는 재미만큼 인문학의
또 다른 재미라고 할 수 있는 ‘깊이’를 놓치지
않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비판과 함께 이렇게라도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주는 것이 이 책의 가치는 긍정적인 반응도 잇따랐다.

인문학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알쓸신잡〉에서는 강릉으로 여행을 떠나며 버스 안에서 시작된 수다에서 ‘올바른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로 올랐다. 우리의 독서는 고전과 인문학을 마치 읽어야만 하는 교과서처럼 대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그 이야기 속에 담겼다. 김영하는 프랑스의 독서법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우리와 달리 “책은 정보,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 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그래서 저녁 식사자리에서 이야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프랑스 사람들은 책을 산다는 것. 정재승 교수는 독서라는 것도 일종의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분야, 작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 독서”라는 것. 유시민 작가는 “시민들이 고전 앞에 주눅 드는 모습이 보기 싫다”며 인문학에 부여하는 과한 무게감을 떨쳐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인문학의 무게에 짓눌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라도 폭넓게 다양한 인문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 건 소중한 일이다. 하지만 그 ‘넓이’가 주는 재미만큼 인문학의 또 다른 재미라고 할 수 있는 ‘깊이’를 놓치지 않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㉞

COURT NEWS

다문화 상담·통역위원을 위한 법률교육 및 간담회 개최



의 후견복지사업 안내'에 관한 주제발표, 다문화 상담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토론, 가족관계등록 담당사무원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국제 결혼 및 국적취득'이라는 주제의 법률교육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다문화 상담 및 통역위원들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의 해당 사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였으며, 우리 법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재판절차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주가정법원(법원장 장재윤)은 2017. 6. 15.(목)에 2017년도 다문화 상담·통역위원을 위한 법률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상담위원 및 통역인들에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을 교육하여 협의이혼 및 가사 상담(통역)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법원과 다문화 상담위원 및 통역인과의 소통을 통해 다문화 상담의 안정적 진행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광주 가정법원에서는 선임부장판사, 공보판사, 강정연 판사, 가족관계등록 담당사무원, 선임조사관, 담당 참여관 및 조사관이 참여하였고, 다문화 상담 및 통역위원 1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선임부장판사의 인사말씀, 강정연 판사의 '다문화 상담 및 가정법원

2017 서울북부지방법원 인문학 아카데미 - '판소리와 창극 이야기'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노태악)은 2017. 6. 19.(월) 14:00 5층 가인 홀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법원 가족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서울북부지방법원 인문학 아카데미'의 네 번째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인문학 아카데미는 '제3부 문화예술 더욱 가까이 가서 보고 느끼기'에 관한 강연 중 첫 번째로 김성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을 초빙하여 '판소리와 창극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판소리와 창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민은경, 유태평양 소리꾼과 전계열 고수가 직접 공연도 하였습니다.

김성녀 예술감독은 우리나라의 민요를 서도, 경기, 남도 민요로 구분

하여 각각의 특색이 어떤지 및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직접 민요를 불러가며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판소리의 소리꾼과 고수 그리고 청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판소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끝으로 창극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였습니다. 김성녀 예술감독의 강연 중간마다, 함께한 소리꾼과 고수의 공연으로 춘향전, 흥부전 판소리의 한 부분과 심청전 창극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 JULY

수원화성, 그 매력에 빠지다



능을 모두 갖춘 새로운 개념의 계획도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전 성곽에 없던 다양한 방어용 시설과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은 성곽 등은 조선 후기 건축 문화의 꽃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이날 행사는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여 수원화성의 숨겨진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직원들은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 서장대 → 화서문 → 장안문 → 방화수류정 코스로 산책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2017. 6. 12.(월) 업무를 마치고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 70여 명과 수원화성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탐방은 업무 부담이 없는 저녁시간 직원 소통프로그램으로 준비한 것으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은 물론 수원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휴식공간인 수원화성을 산책하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원화성의 또 다른 매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수원화성은 조선 제22대 정조대왕 때 전통적인 축성 기법과 거중기 등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생활공간인 읍성과 방어용 산성의 기

제2회 의정부지방법원 슈팅★스타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정종관)은 2017. 6. 8.(목) 09:00 파주NFC(National Football Center)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천종호 부장판사, 이용호 기획법관, 신동주 소년단독판사, 사무국장, 각 실·과장과 축구사랑나눔재단 이갑진 이사장, 김동대 이사, 박용수 사무국장, 홍보관 파주NFC센터장, 정의석 풋볼팬터지움대표, 유현정 풋볼팬터지움 총괄이사, 임은주 FC안양 단장 및 로템 청소년학교,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효광원, 만사소년축구단의 보호소년과 기관 관계자 등 약 3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의정부지방법원 슈팅★스타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부산의 만사소년축구단이 새롭게 참여하고 축구사랑나

눔재단의 후원으로 제1회 대회 때보다 더욱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슈팅★스타는 보호소년들이 정해진 룰에 따라 동료들과 협동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축구시합을 통해 도전정신, 열정, 성취감, 자존감을 고양함으로써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법원사람들 원고모집

법원 가족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더불어 '스타일링 Q'와 '만나고 싶었습니다'에 참여해 주신 분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원고 분량 : PC로 작성할 경우 A4용지 3장 내외
- 원고 마감 : 수시
- 보내실 곳 : E-mail_법원사람들@scourt.go.kr
- 문의전화 : 02-3480-1456 공보관실
-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List.work?gubun=7>

사법부 홍보를 위해 대법원 페이스북, 트위터와 블로그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주소 : <http://www.facebook.com/scourtkorea>
- 트위터 주소 : <http://www.twitter.com/scourtkorea>
-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
- 유튜브 주소 : <http://www.youtube.com/scourtkorea>
- 인스타그램 : <http://www.instagram.com/sourthkorea/>



지난호 퀴즈 당.첨.자.

김대윤 실무관 의성지원
양대만 실무관 광주지법
박진영 실무관 전산정보관리국
진은희 행정관 인천지법
강지원 행정관 법원도서관



지난호 퀴즈 정.답.



다른 그림찾기

법원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법원사람들」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2017년 「법원사람들」에 관한 소감을 '다른그림찾기'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서로 다른 부분을
다섯 군데
찾아주세요.

다른그림찾기 정답은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한 사진을 스캔한 후 e-mail에 첨부하여 해당 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 e-mail : 법원사람들@scourt.go.kr
 - 소감과 다른그림찾기 정답을 모두 보내주신 분들에게 한하여 매월 추첨을 통해 대법원 기념품을 드립니다.
- 정답 및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사용자지원센터 한정현 상담사



친절한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2017. 2. 21. 가족관계증명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아서
무척이나 고생이 많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친절하게 도움을 주신 한정현 상담사님! 고맙습니다.

대법원 하면 딱딱하고 경직된 것만 생각이 났는데...
제 앞에 부드러운 인상으로 성큼 다가올 수 있게 해주셨네요.
친절한 공무원, 파이팅!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2017. 2. 황 ○○

재판에서의 진술이 어렵고 답답할 때

진술보조인과 함께 하세요



“

스스로 하는 법정진술이 어렵다면
이제, 진술보조인 제도를 만나보세요.
재판에서 나의 말을 잘 이해하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나와 함께 출석하고 함께 진술해주니까,
진술 과정은 든든해지고, 신뢰는 더 높아집니다.

”

2017년 2월 4일 부터,
민사소송에서의 진술보조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진술보조인이란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을
받는 당사자의 소송관련 진술을
도움주는 사람

** 진술보조인의 자격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척, 형제
·자매, 가족, 동거인 등 일정한
신분관계 및 계약관계 또는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

** 진술보조인의 역할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함께 출석
하여 동석할 수 있으며, 법원,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중개 또는 보조